

Market Issue

미중 정상회담: Before & After

- 미중, 5월 '건설적 전략 안정' 재확인. 무역휴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
- AI는 정상급 협의 영역으로 확대. 양국이 대화 지속 필요성을 확인
- 주요 세부 통상 합의와 AI 제도화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무역휴전 연장·AI 대화 확대, 구조적 갈등은 유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안정과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민방문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경제·무역팀의 새로운 협상 성과를 언급하며 후속 대화 의지를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합의한 '건설적 전략 안정'을 재확인하면서 협력을 중심으로 경쟁은 관리하고 이견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 간 메시지는 관계 안정에 무게를 뒀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이번 회담은 대규모 신규 합의보다 기존 갈등의 재확산을 억제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현지시각) 현재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상세 팩트시트나 공식 회담 결과문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산물·보잉·희토류·첨단기술 등 세부 합의의 구체적인 규모와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표 1. 미중 정상회담: Before & After

구분	Before: 5월 베이징	After: 9월 워싱턴	평가
관세·무역	관세 갈등 관리 및 후속 협상	무역휴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	기간 연장
경제·통상	무역·투자위원회 신설	'새로운 공동 합의' 발표. 세부 미공개	합의 도출·세부 미공개
농산물	대두 별도·연간 최소 170억달러 구매 약속	기존 구매 이행 지속, 신규 규모 미확인	이행 점검 지속
희토류	안정적 공급 문제 해결 합의	미국은 이행 부족을 지적, 신규 조건 미공개	점검 지속
AI	별도 정상급 협의 없음	양 정상 AI 대화 지속 확인, 中 위험·오용 방지 협력 제안	협의 확대
첨단반도체	美 수출규제·中 기술자립 지속	규제 변화 발표 없음	변화 미확인
대만	기존 입장 차이 유지	中, 美에 '대만 독립 반대' 요구	입장차 지속·美 대응 미확인

자료: 백악관, 중국 외교부, 주요 외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무역, '타결'보다 시간 확보

가장 명확한 결과는 무역휴전 연장이다. 양국은 11월 종료 예정이던 휴전을 두 달 연장하며 관세 재격화 가능성을 낮췄다. 다만 관세 조정, 미국산 농산물 구매, 희토류 공급, 기술 규제 등 핵심 쟁점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농산물·희토류 등 세부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공개될 세부 합의와 실제 이행 여부가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AI는 합의 확대, 대만·첨단기술은 기존 구도

AI는 5월과 비교해 가장 뚜렷하게 합의 범위가 넓어진 분야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AI의 위험과 편익을 논의하고 오용을 공동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AI 관련 대화를 지속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상회담 전 미국이 제안했던 AI 사고 통보 체계의 제도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대만과 첨단기술에서는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기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보다 한 단계 강한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공식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첨단 GPU와 반도체 장비 규제에서도 새로운 정책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은 미중 경쟁의 완화보다 갈등 관리의 연장에 가깝다. 무역휴전은 연장됐지만 농산물·희토류의 이행과 첨단반도체 규제 변화 여부는 여전히 확인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관세 조정과 희토류 공급 조건, AI 협의체 제도화, 미국의 대중 GPU·반도체 장비 규제 변화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